

임상병리교육과 내일에 거는 기대

아산재단 보령병원 서 덕 규

나의 기억으로는 특수건강진단 신체검사에 관한 관심을 두기 시작한 때는 내가 특정작업장에서 생산업무를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대하고 난 후라고 생각된다.

오랜기간을 임상병리검사업무에 근무해 오면서도 병원에 여러가지 사유로 입원하는 환자들을 무심히 보아온 처지였기에 나로서는 간단하게 생각되어 정상인들이라고 보아온 근로자 건강진단은 우리나라 법규정에 있으니까 법적요건에 부합되도록 실시하는 것이라고, 병원근무를 하는 사람으로 가끔 출장검진을 나간다는 의무감으로 일관되어 생각했던 것은 사실이었다. 언제인가 우연한 기회에 갱내 최악의 조건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보고 또 그런 환경에서 질병에 이환되어 입원하는 근로자를 크게 주목하게 된 것이 근래 십년이내의 일인것 같다. 자주 출장근무하여 목도하거나 동료들의 화제에 오르는 근로자가 고통받는 장면을 보고서야 느끼게 된 점은 아마도 우리 스스로가 매일매일 밀려닥치는 검사재료와 새로운 검사법의 검토등에 몰두하다보니 자연 그렇게 무심하게 되었으리라 자위한다.

임상병리 업무경력중 검사실내 업무보다 밖의 일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현 직장에 옮겨와서부터였다.

고분자 화합물인 합성수지 사출기에서 일하는 어린공원들의 손가락을 보면서 또한 갱내에서 일하다 유명을 달리한 근로자의 폐조직속에서 석탄가루를 보면서 너무나 건강관리에 소홀하였던 우리자신들의 서글픔을 느끼면서 무엇인가 도움을 주는 병리검사기사로서 의무감을 가져야겠다는 마음으로 근로자 검진에 임한다.

특수검진에는 실제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담당함에 따른 필요성에 의해 금년에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임상병리교육을 실시하였다.

병원에서 환자의 검사물이 밀려닥치지만 노무자의 건강관리는 예방적인 면에서 더 중요하다는 관점때문에 더 성실히 하여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겨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에 동감한다.

경제성장이 지속되면 병리검사실 업무도 차츰 체계화되고 적정한 업무량으로 책정될 것이라 기대하여 본다.

처음 받는 보수교육이니만큼 첫술에 만족할 수는 없었지만 선생님들의 많은 노력으로 비록 한종목일지라도 Porpyrine 뇨를 준비해 주었던 것은 그에 대한 검사를 실제로 처음 해보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도움을 주었던 것 같다.

수많은 새로운 유해화학물질의 개발생산에 비하여 인체유해성분에 대한 검사법의 개척은 뒤따르지 못하는 실정에서 한없이 끌려다니는 분석법개발은 어렵겠으나 재빠른 기술도입을 기대하여 본다.

또한 AAS, HPLC 등의 분석기등 좋은 기자재를 확보하여 좀더 정밀하고 신속한 분석을 할 수 있다면 하고 병리기사로서 바라마지 않는다.

입원해 있는 노무자들을 대할때면 하루빨리 병리검사에 대한 고도의 기술진흥이 이루어져야겠다는 마음이 솟구친다. 초기에 큰 성과를 기대할수야 없겠지만 1년, 2년 계속 노력해 나간다면 근로자의 건강진단도 충실하여 질 것이고 또한 검사방법도 향상되어 이환된 질병을 쉽게 규명할 수 있게 된다면 근로자의 건강은 더욱 향상되어 나가리라 믿으며, 좀더 나은 보다 정확한 산업보건적 정착을 위해 실무자들의 노력은 물론 새로운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이 지속되길 바라고 싶다.